

10 오피니언

사설

스스로 '대학생' 의미 되짚어보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 며칠 전, 교내 주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글 하나가 게재되면서다. "내일 오후 5시에 멀관에서 불이 날 거예요. 학교 가면 안 돼요"라는 단 두 문장이 담긴 글로 학교에는 큰 소동이 났다. 학생 대부분은 2010년 EBS에서 방영된 '미래를 보는 소년'에 나온 유명한 대사를 따라 쓴 장난글이라는 것을 직감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교내 구성원과 경찰, 소방관에게는 교내 테러 예고글이나 다름없었다.

글이 게재된 직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시각은 오후 6시경으로 학교 행정실 직원이 모두 퇴근한 이후인 탓에 혼란은 가중됐다. 평소 안면이 있던 우리 신문 기자에게 학교와 연락할 방법을 찾아달라는 간곡한 요청까지 있었다.

좁혀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

른 가운데 이번 사태에 중심이 된 에브리타임 글 또한 장난의 일종으로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달아 게재된 칼부림 예고글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학교에도 비슷한 맥락의 글이 올라왔다는 점은 구성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방범죄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8시경 멀티미디어교육관 앞에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하는 광경까지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행정인력 또한 동원됐다. 경찰, 소방관과 마찬가지로 우리학교 행정인력 또한 100건 중 1건만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100번 염려할 수밖에 없다.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한 명의 장난으로 인해 동원된 인력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학교가 표방하는 전인격적 가치는 교양교육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학교 교양교육의 목표다. 그러한 점에서 교양수업이 이뤄지는 '멀티미디어교육관' 건물 앞이 테러 예고글로 인해 경찰차와 소방차로 붐볐던 모습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하다.

사회문제를 가장 앞선에서 바라보고 마주한 과거 대학생들의 현실 비판은 변화의 마중물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고 있자면 과거 대학 정신이 유지되기 커녕 퇴색된 듯하다. 게시자는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수백 번은 소개했을 것이다. 그것은 소속을 나타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다.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겼다. 게시자는 대학생으로서 스스로가 어떤 의

미를 가지는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은 장난글 두 문장이 아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왔을 노력의 산물, 자신이 몸담은 대학의 가치를 제 손으로 허무는 짓이다. 게시자는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될 대학생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우리는 쉽게 무엇이든 생산하고 소비해버리는 텍스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글에 대한 신중함과 존중의 자세를 갖추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게시자는 결국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체포 사실이 공표되는 것은 형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처벌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끄러움이야말로 스스로 느껴야 한다. 이번 일을 성찰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대학생'다운 대학생이다. 게시자는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구성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세시봉

기울어진 축

석예진 기자
stpk02@khu.ac.kr



교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사건 이후 수면 아래 있던 교권 추락 사례가 줄지어 보도됐다. 그 과정에서 유명 웹툰 작가가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더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이 포함됐다.

움직임은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났다. 초등학교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중심으로 연가나 병가 등을 사용한 우회 파업의 목소리가 확대됐다. 고(故) 서이초 교사의 49제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병가나 추모 집회 등을 통해 공교육의 현주소를 돌아보자는 취지다. 다만 교육부의 강력한 제재가 예고된 만큼 '멈춤'이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단체 행동에 대한 입장차가 있어 한동안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실은 언제부터, 왜, 투쟁의 장이 됐을까? 교실은 '작은 사회'로 불려 왔다.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사회에서 질서와 규칙은 필수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질서와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날 그들은 '그림자조차 밟지 말아야'하는 경외의 대상이었으며 교사의 체벌 역시 효율적인 훈육 방법으로 여겨졌다. 이후 체벌이 전면 금지되는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반면에 교사의 '전통적 권위'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는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반비례 관계라는 뜻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은 사제 관계인 동시에 학급이라는 사회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공동체 구성원이다. 구성원 한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다른 한쪽 또한 곤경에 빠진다. 교사의 훈육과 제재가 사라진 무법 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이다. 맹신과 불신 사이, 학부母的 적절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다. 교실을 구성하는 모든 축이 기울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교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누구나 자유로운 공간 사용을 위해

우리 공간, 모두의 공간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각자의 마음속 '우리' 학교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학습 또는 휴식 등 학생으로서 학교가 제공하는 기능을 기꺼이 누리고자 할 때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말이다. 대부분은 본인이 소속된 단과대 건물, 그리고 교양 수업을 듣는 후마니타스칼리지 혹은 청운관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평소 타 단과대 건물을 이용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이들을 찾긴 힘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까닭에는 '위화감', '낯섦', '눈치'와 같은 단어들이 자주 자리했다. 사실 기자조차도 마찬가지인 일이었다. 타 단과대 건물을 이용할 때면 왜인지 내게 'OO대학 소속'이라는 투명 이름표가 붙어 있는 기분이 들었다. 이곳의 그 누구도

내가 타 단과대 소속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앞에도 말이다.

이 같은 학생들의 심리적 장벽에는 우리가 각 건물을 부르는 방식 또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 '정경대학' 등의 건물 명칭들이 타 단과대 학생들의 발길을 막는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별다른 생각 없이 오랜 시간 익숙하게 불려 온 그 명칭들이 '각 단과대학 건물은 소속 구성원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굳혀왔다.

지나온 세월에 이미 고유명사가 돼 버린 건물 명칭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학교 측도 학내의 모든 이들이 모든 공간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공간 관리제도의 개정과 교내 공간 효율화 사업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교내 구성원들 또한 이에 응답할 차례다. 학습과 휴식을 위한 장은 늘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평 타 단과대 건물 이용을 꺼리는 학내 분위기가 여전하다.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송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